

01 교회소식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앞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젊은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를 위한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02 생명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성경 나아만 장군을 통해 살펴본다.

03 특집

변화와 생명이 넘치는 제단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받아 참된 행복을 얻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04 간증

“우리 삶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얻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보호받는 등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전한다.

# 만민뉴스

제826호 2018년 2월 1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1~2)

님의 능력으로 역사됩니다. 성경 66권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좋은 예입니다.

## 2. 나아만 장군이 응답받은 이유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 다음가는 위치였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아만이 응답받은(눅 4:27)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 첫째로, 마음이 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마음까지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계집종의 말 한 마디도 업신여기지 않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 온 계집종 하나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나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입니다.

### 둘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왕하 5:5). 심지어 고고 거두겠다고 자신이 심은 것이 상을 바라는 요행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응답받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에 맞게 정성 다해 예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마 6:21).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든 몸을 이끌고 멀리에서 찾아갔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몸을 일곱 번 씻으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육의 한계를 가진 그로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돌아가려고 했지요(왕하 5:10~12).

그러자 종들이 “내 아버지여 부르며 만류합니다(왕하 5:13). 이는 그가 종이라 해도 친자녀처럼 사랑과 덕으로 대해 준 것을 짐작케 하지요. 나아만은 잠시 마음이 상했으나 이내 종들의 말에 마음을 돌이켜 순종합니다.

### 넷째로, 끝까지 변개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완전수이며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단강 물에 일곱 번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온전히 순종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까지 몸을 잠근 후에 보니 문둥병이 치료되어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해졌지요(왕하 5:14).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다섯째로, 은혜를 값울 줄 알았습니다.

나아만은 치료받은 후에 자신과 함께 온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 감사의 표시를 할 뿐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합니다(왕하 5:15~17).

그에게 율법을 가르친 사람도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전한 적도 없었으나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지요. 그러나 자신은 왕에게 속한 자로서 다

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왕과 함께 우상 앞에 나가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미리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왕하 5:18).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한 번 만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선한 중심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해 영광받으셨지요.

## 3.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통로

흔히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 “나는 안돼. 할 수 없어. 저건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야.” 하며 부정적인 고백을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응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은 나와 창조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과 같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으며(막 11:24),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는 영의 세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입니다(약 4:3). 정욕을 위해 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며, 아직 응답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안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을 내보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경 66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범사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란 무엇이며 많은 믿음의 선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 1. 불가능이 없는 영적 믿음의 세계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종 질병이 늘어나고 불의의 사고나 재난이 끊이지 않으며 난치병,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부귀와 명예를 누리다가도 순간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해결하지 못한 채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육의 세계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의 세계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영의 세계입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어떤 한계나 불가능이 없는 무한한 세계로 전지전능하신 하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월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넘쳐나요!

##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와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교회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이받은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다.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 영적인 말씀을 값없이 양식 삼을 수 있어 국내외 많은 사람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영혼육의 치유를 경험함으로 변화와 생명의 길로 나오고 있다.

**빅토르 첩취가쉐프 성도**(46세, 러시아)는 CNL과 TBN러시아 방송(러시아어 기독교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깊은 영적인 말씀



에 감탄했다. 그는 “다른 설교자들과 달리 겸손하고 진실하셨고, 풀리지 않던 오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직업상 손가락이 항상 붓고 손톱 주변은 굵고 다리에도 건선이 있었으나 시공을 초월한 이 목사의 기도로 치료받기도 했다.

그의 가족도 교회에 등록해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회 예배에 함께하며, 성결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고 있다.

**박종영 성도**(43세, 3세대 32교구)는 예전에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오죽하면 ‘세상은 너무 악해졌고 죄로 잡아끄는 힘이 너무 강하니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권능’이라는 동영상을 본 뒤 ‘이런 권능을 나타내는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졌다.



여러 설교 중에서 먼저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듣고 이후 계속하여 이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그는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하여 가족과 함께 만민의 양 떼가 됐고, 현재는 신앙의 참 행복을 맛보며 죄와는 상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도 주 안에서 더욱 화목해지는 축복을 받았다.

### “단 한 번의 기도로 심각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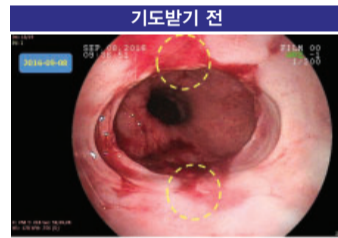
정송이 집사 (40세, 2가나안선교회)



2년 전부터 가끔씩 속이 너무 쓰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위로 올라와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과 이물감이 있었지요. 속이 매스껍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속에서 역류가 되고 가슴이 타는 듯한 증세로 인해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2016년 9월 위내시경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식도에 염증이 심했고 곳곳에 출혈도 있는 상태였지요. 약을 복용해도 낫지 않았고, 1년 뒤인 2017년 8월 정기 검진



▲ 위 식도 이행부위에 다발성 출혈을 동반한 식도염 소견이 보임.

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위와 식도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새벽, 금요일야예배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놀랍게도 속 쓰림과 이전의 모든 증세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물감도 없었고, 소화도 잘되었지요. 당회장님의 기도로 역류성 식도염이 순간에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 “오른팔이 골절됐는데 수술 없이 완벽하게 붙었어요”

정주영 형제 (14세, 1세대 9교구)



2017년 11월 4일,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오른쪽 팔을 다쳤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제 팔이 완전히 부러졌다며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멈춰서 팔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고, 뼈에 정

확한 위치를 맞추어주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팔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어서 그냥 집으로 왔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기도를 받은 뒤에는 통증이 점점 사라져 그날 밤에 아주 잘 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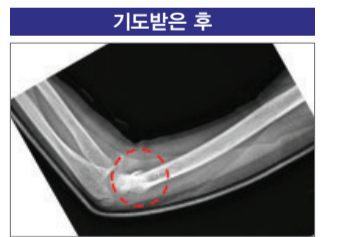
의사선생님은 골절됐으니까 통증이 심할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니엘 철야에 가서 기도하다가 회개하였는데 눈물이 펄펄 쏟아졌습니다.

11월 17일, 산상기도 중이신 당회장님께 서신으로 기도를 요청한 후,

12월 2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제 뼈가 완벽하게 잘 붙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 상완골 말단 부위가 완전 골절되어 전위되어 있음.



▶ 골절된 부위가 골진으로 잘 채워져 있고 단축 소견은 보이지 않음.

###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를 치료받아 정상이 되었습니다”

맹창극 집사 (67세, 중국 1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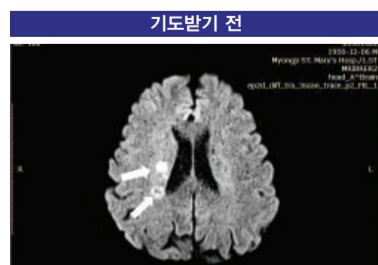
2017년 12월 26일(화) 새벽, 출근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몸이 자꾸 왼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려니 다리와 허에 마비가 와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힘들었지요.

간신히 집에 도착해 딸이 불러준 119구급차로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 뇌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세 군데에 뇌세포가 손상돼 안치될 수 없고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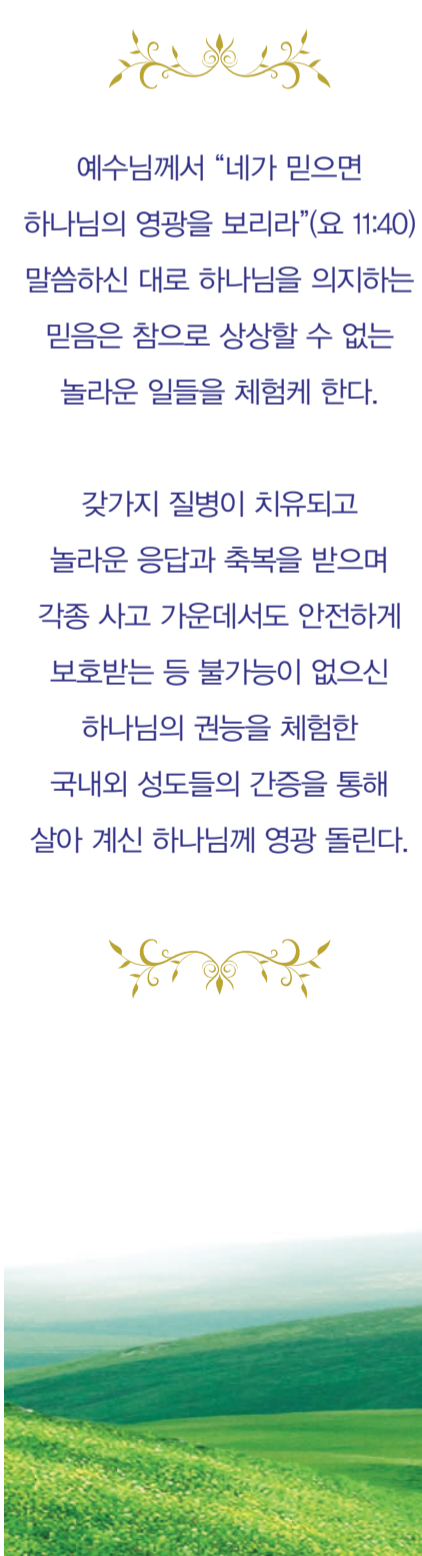
하지만 12월 29일(금)

오후 5시경,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받은 뒤에는 다리에 힘이 주어져서 부축 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었으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았습니다.



▲ 기저핵과 우측 측뇌실 후방의 뇌백질에 뇌경색 소견 보임.

금요일야예배가 마쳐진 30일(토) 새벽 4시경, 당회장님과 악수한 후부터는 굳었던 혀가 풀어져 말하는 것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 “저희 가정에 축복이 넘칩니다”

백용철 집사 (53세, 1대대 6교구)



최근에 주 안에서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열매를 낼 수 있음을 체험해 참 행복합니다.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데, 수년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제가 맡은 여러 개의 공사현장에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았습니다.

또한 평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주변을 섬기려고 노력했더니 2017년 12월 31일에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해안전 대책 추진에 참여하여 피해 절감 및 시민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들 백종현 형제(21세)는 다섯 살 때 말을 심하게 더듬었지만, 믿음으로 당회장님과 악수한 뒤 즉시 치료받았지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아들은 언어 쪽을 전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기를 기도하였고, 2018년도 수시 논술로 한국외국어대 아랍어과에 4년간 등록금 반액 장학생으로 입학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딸 백지현 자매(19세)는 어렸을 때 후진하는 차에 밀려들어가 죽을 뻔했으나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켜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올해도 학생주일학교 고등부 연합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학교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표창장을 받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내 김미옥 권사(49세)도 교구에서 조장의 사명을 받아 영혼들을 돌아보며 기도에 힘쓰니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지요. 온 가족을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참된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 “혈액암 4기를 치료받았어요”

타라 싱 성도 (28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2017년 4월부터 몸에 이상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통증과 심한 두통, 가려움증으로 잠도 잘 지지 못하니 몸은 날로 쇠약해져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요.

병원 검사 결과, 혈액암 4기로 암 세포가 온몸에 퍼져 항암치료를 해도 완치될 보장이 없고, 그나마 치료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달 전에 전도되어 간 델리만민교회에서 들은 한국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GCN방송으로 다니엘절야에 참석하여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세 차례 당회장님의 환자기도(mp3)를 받으며,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도 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 김상휘 목사님에게 수시로 기도를 받았지요. 그 결과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또한 8월에 개최되는 ‘2017 만민 하계수련회’ 소식을 들은 후, 온전히 치료받고자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지요. 마침내 수련회 첫날인 8월 7일, GCN방송 생중계로 수련회에 함께하며 당회장님께서 해 주시는 환자기도를 받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의 불을 받아 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땀이 많이 흘렸고 그 뒤 이전의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흘 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는 “암 세포가 사라졌네요.”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불의의 화재, 끔찍한 사고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았습니다



필리핀 ‘테레시따 따마요’ 성도 (67세, 마닐라만민교회)는 큰 화재의 참사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2018년 1월 4일 오전 10시경,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시작된 화재는 20대가 넘는 소방차가 동원되어 오후 5시경에야 진화되었다. 50채의 이웃집을 전소시키고 테레시따 성도의 뒷집까지 태운 불은 놀랍게도 그녀의 집으로는 옮겨 붙지 않았다.

“당회장님의 기도로 허리케인 어마로부터 보호받은 성도들의 간증이 떠올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기도 요청을 했는데요. 신기하게 저희 집만 온전히 보호받아 목자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한다.



케냐 ‘아킨스 오다카’ 형제(23세, 나이로비만민교회)는 2017년 12월 29일, 건축 현장 4층에서 작업하던 중 나사가 느슨해진 사다리를 밟아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동료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겨 몸 상태를 검사했으나 얼굴에 살짝 긁힌 상처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당시 제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어떤 힘이 제 몸을 돌리는 느낌을 받았고, 순간에 머리가 아닌 오른손이 먼저 땅을 짚었습니다.”라고 했다. 물론 그의 오른손 엑스레이 촬영 결과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몰도바 ‘바실리’ 성도(31세, 몰도바만민교회)는 2016년 10월 11일, 운전 중 자신의 실수로 옆 차와 부딪혀 상대방 차가 그의 차체를 완전히 찌그러뜨리며 그가 앉은 운전석으로 밀고 들어왔다.

“신기하게도 옆 차가 제 몸에 닿기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간신히 차 문을 열고 나와 몸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다친 곳이 전혀 없었지요. 목자의 공간 안에서 보호받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인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 CD를 전해 듣고 만민의 양 떼가 된 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한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막성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